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The Recognition Change of Standard of Living of Retire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 주 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최 현 자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Kim, Joo-H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Lee, Ki-Yo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Choe, Hyun-Cha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tirees' attitudes towards change of living standard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Retiree Survey, as carried out by the Korean Investors Education Found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ome retirees were not well-prepared for retirement, i.e., they lacked financial consultation, had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ed sufficient wealth. Retirees suffered from health difficulties, loneliness or a sense of alienation, family conflict, or lack of pastimes. 2) Certain groups recognized the change of living standards for retirees a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Retirees who recognized the change of living

* 본 연구는 2009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김주희 (heeya214@snu.ac.kr)

*** 교신저자: 이기영 (leek@snu.ac.kr)

standards as negative were not well-prepared for retirement, had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ed sufficient wealth. They also suffered from health difficulties, loneliness or a sense of alienation, family conflict, or lack of pastimes. 3) There was a strong probability for the negative recognition group not to be well-prepared for retirement, having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ing in sufficient wealth. There was a strong probability for the negative recognition group to suffer from health difficulties or lack of pasti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retirees should prepare for retirement with a positive attitude.

Key Words : 은퇴(retirement), 은퇴준비(prepare for retirement), 생활어려움(living difficulty), 생활수준 변화 인식(Recognition Change of Standard of Living)

I. 서론

인구의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 보장과 소비수준 유지 등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에 대한 준비와 은퇴로 인해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이며,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균 은퇴연령 58.4세(2008년 기준), 평균수명 79.1세(2006년 기준)를 고려해보면 은퇴 이후의 생활은 20여년이다. 은퇴는 노년기 초기에 경험하는 사건으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은 은퇴 전의 준비정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은퇴준비의 핵심은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여,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한 고령자는 2007년 기준으로 34.7%였으며, 2007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가 43.6%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38.4%), 소일거리 없음(5.3%), 외로움/소외감(3.7%) 순으로 나타났다(고령자통계, 2008).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은 노년기를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소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노후의 적정소비수준을 예측하더라도 충분한 저축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홍성희·곽인숙, 2006). 또한 노후에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중 경제적 문제는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건강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손상희,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생활은 불안

정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구, 2007). 미국은 은퇴 전보다 은퇴 이후가 좋다는 응답이 46%,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6.3%에 그친 반면,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70%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은퇴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은퇴 자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에 관한 연구들(원종욱, 2000; 안종범, 전승훈, 2005; 여윤경, 2005; 백은영, 2008), 정년제도의 유형이나 실태분석(김성순, 1984; 강영애, 1987), 은퇴에 따른 스트레스(최성재, 1989; 지연경·조병은, 1991; 한희자·강은실, 2001), 은퇴후 노후적응 문제(허정무, 1998; 김애순·윤진, 1995; 모선희·강지현, 2003), 은퇴 이후의 생활만족도 및 은퇴만족도(신화용·조병은, 2001; 신현구, 2007) 등이 있으나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은퇴자들은 조기 퇴직, 비자발적 퇴직 등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실태는 어떠한지, 은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도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정의

은퇴에 대한 정의는 연령, 직업활동 중단, 연금수급, 생애주기의 과정 또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연구 연구자의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연령, 직업활동 참가중단, 연금수급 등은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은퇴의 정의이며, 생애주기의 과정 또는 사건으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즉, 연령으로 봐서 고령이며 직업으로부터 물러난 경우를 흔히 은퇴로 보았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은퇴는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도 은퇴를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과거와 오늘날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퇴의 정의는 연령과 직업활동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은퇴는 60세 전후의 연령으로 주된 직업활동을 그만둔 상태를 뜻한다. 예컨대 미취업자, 무급의 가족종사자, 연로의 경우 은퇴자로 규정되며(김연정, 1996),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가구가 은퇴가구(성영애, 1994)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70세 이하로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부부를 은퇴한 부부(신화용·조병은, 2001)로 보며, 가구주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는 계속하고 있는 가구를 은퇴가구(이희숙·신상미, 2003)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직업과 일자리 이동의 분석을 통해 은퇴를 연령과 직업상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있다.

은퇴를 정의하는 또 다른 기준은 연금 수급 여부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최초로 수급

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것이다(김지경, 2005). Gratton(1996)은 근대적 의미에서 은퇴를 정년제나 연금혜택 보장과 같이 제도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유인된 노동이탈과정으로 이해하였다. Atchley(1976)는 “은퇴란 개인이 전임 보다 적게 고용되고, 그의 수입이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득한 은퇴 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은퇴 정의를 살펴보면 은퇴는 생애주기 과정의 하나의 사건 또는 과정이다. 은퇴가 사건으로 간주되어질 때는 은퇴란 직장생활의 끝으로 ‘역할 없는 역할’로 묘사되며, 과정의 측면에서 관찰하면 개인의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이전 수입의 상실이나 자유시간의 증가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한희자, 강은실, 2001).

예컨대 Taylor(1972)는 은퇴를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 사건 또는 다른 과정들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최신태, 김종숙(1983)은 은퇴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나연 외(2007)에서는 은퇴를 인생에서 반드시 한번은 경험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관점에서 따라서 은퇴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분명 노동시장 또는 취업여부와 관련된 개념이며(Hurd, 1990), 이와 더불어 연령, 사건, 생애주기상의 역할 전환 등도 은퇴의 정의에 내포되는 것이다.

2. 생활수준

생활수준은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만족감(social satisfaction), 사회적 복리(social wellbeing) 등의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된다(윤중주 외, 1990). 1960년까지는 준거의 개념으로 생활수준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삶의 질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하성재, 1993). 삶의 질은 생활수준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객관적 차원에서의 물리적·환경적 구성요소들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부터 일련의 학자들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물질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하부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Andrews, 1976; Campbell, 1981; Hafstrom, 1986). 즉, 객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은 소득,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 등 생활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며, 주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해석으로 복지, 만족, 행복 등을 평가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행복감의 수준과 삶을 즐기는 빈도를 고려한 정서적인 측면과 인식적 경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한 개인이 주요 생활영역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객관적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를 삶의 질 개념 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상당히 나타났다(한경혜, 1980; 김경동 외, 1983; 문숙재·정은숙, 1985). 또한 임희섭(1996)은 삶의 질 차원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

를 지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특히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개인이나 집단 속성에 따라 그 양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서는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지표보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경숙,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 비자발적 은퇴의 증가 등으로 삶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엇보다 개인이 은퇴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이 은퇴이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다(김애순·윤진, 1995).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은 객관적인 요소와 더불어 주관적인 평가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및 영향요인

1)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된다. 즉,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 상태, 사회적 역할, 건강, 연령 등 객관적인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6차 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은퇴연령은 56.8세이며 은퇴사유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46.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권고사직/명예퇴직, 정년퇴직 순이었다. 또한 은퇴 이후 ‘소일거리를 한다’고 응답한 총 41명의 은퇴자 중 남자 28명, 여자 13명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소득 원천은 자녀소득/친지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정

부/사회단체보조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은퇴자들은 은퇴 이전에 비해 경제적 상태, 사회적 역할, 건강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를 주관적으로도 인식하는데, ‘고령화연구패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이후 상태가 은퇴 전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와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0.7%, 49.3%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 이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6.3%에 그친 데 비해,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미국인들은 은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나 되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였으며, 은퇴 전보다 은퇴 이후가 좋다는 응답은 46%인 반면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신헌구, 2007)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조기퇴직, 비자발적 은퇴 등의 방법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를 고려하였다. 각 변수들과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퇴준비 변수

은퇴준비 상태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를 다르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퇴준비 상태를 은퇴대비여부, 재무지식 정도, 재무상당여부, 자산충분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은퇴대비

은퇴대비 여부는 은퇴 이후의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퇴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정서적 만족도나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최가영 등, 2001). 반면 은퇴계획을 세움으로써 노년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노후에 예측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적응력을 높게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노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예기적 사회화를 용이하게 하여 노후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진계환, 1988). 은퇴계획을 잘하면 생활만족도가 높음으로 은퇴대비여부가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재무지식 및 재무상당

재무지식 및 재무상당은 은퇴에 대비한 적극적인 태도로서 은퇴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은정(1993)의 연구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자신이 자원을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40%정도로 재무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Law(2004)의 연구에서는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은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식 및 재무상당은 은퇴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자산 충분성

많은 연구들(김애순·윤진, 1995; 김정현, 1995; 성미애, 1999, 이은영, 1996; 허정무, 1998)이 생활수준, 수입 등이 은퇴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입액수 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김태현 외, 1998).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력 인식도 노후 경제생활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준다.

(2) 생활어려움 변수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 건강, 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은퇴자들은 은퇴 시에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심리적 외로움/소외감, 가족간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고령자 통계, 2008),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은퇴라는 사건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일거리 없음

‘일의 여부’는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로서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홍순혜(1984), 서병숙(1989) 등에 따르면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역할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Moen, 2002). 역할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소일거리 여부가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건강상 문제

건강상 문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다(김정석, 2001).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계획성이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적 자원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kim and moen, 2002). 따라서 은퇴 이후의 역할상실 문제와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외로움/소외감

외로움/소외감은 은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Burgess, Rose, Rosow 등은 은퇴가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을 막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유발시킨다고 보고했으며, Maxwell은 은퇴가 은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수입의 감소 또는 상실에 의한 생활의 불만족,

소외감을 일으킨다고 보고했다(한희자, 강은실, 2001, 정신간호학회지) 즉,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역할상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④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전 생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은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김정현(1995)은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아내의 지지가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은영(1996)은 은퇴한 남성노인들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미애(1999)도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은퇴자가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가족갈등은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① 연령

연령에 따라 은퇴태도 및 생활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무(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앞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 전반적인 적응 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진, 윤진, 1995). 한희자·강은실(2001)의 연구에서 은퇴자들의 은퇴 이후 삶의 상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나 적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에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② 성별

성별은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료된다. 배문조, 전귀연(2004)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충격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김지경, 2005).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③ 직업 및 학력

직업의 종류 및 학력에 따라 은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Foster(1996)는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문직업인들이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신현구(2007)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백은영(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고졸이상인 경우가 은퇴 이후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자의 은퇴 전 직업이나 교육은 은퇴계획이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어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도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백은영(2009)의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비해 은퇴 이후 더 불만족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으면 은퇴 이후 더 불만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과 부채는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라 은퇴자의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라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가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로는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자산, 부채를, 은퇴준비 변수로는 은퇴대비 유무, 재무상담 유무, 재무지식정도, 자산의 충분성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을 포함하였다. 재무지식 정도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방법,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방법, 대출(상환) 및 개인 신용관리 방법, 절세방법,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방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1=매우 나빠졌다 5=매우 좋아졌다
독립변수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연령 성별 은퇴 전 직업 학력 자산 부채 은퇴준비변수 은퇴대비 유무 재무상당 유무 재무지식 정도 자산의 충분성 생활어려움변수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	연령(세) 1=남성 0=여성 1=봉급생활자 0=자영업자 교육년수(중졸이하=9, 대학원재학이상=17) 자산(원) 1=부채있음 0=부채없음 1=은퇴대비함 0=은퇴대비하지 않음 1=상당받음 0=상당받지않음 1=전혀 모른다 4=잘 알고 있다 1=충분 0=부족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법, 노후설계방법,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운용방법, 주택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방법, 소득 및 생활비 관리방법, 상속이나 증여 방법의 10개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변화 인식 정도는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은퇴자 현황 파악을 위해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자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자 조사’는 2007년 3월 6일부터 23일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과정과 은퇴생활 전반에 관해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일대일 개별 면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조사표 본인 503명의 자료 중 응답에 결측치가 많거나 극단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493명의 표본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9.02세였으며, 50-59세는 51.5%, 60세 이상 48.5%였다. 성별은 남성 78.9%, 여성 21.1%였다. 은퇴 전 직업은 봉급생활자 67.3%, 자영업 32.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52.5%), 전문대졸이상(28.8%), 중졸이하(18.7%) 순이었다. 자산은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변수	빈도(%)
연령*	50-59세	254(51.5)
	60세 이상	239(48.5)
성별	남	389(78.9)
	여	104(21.1)
은퇴 전 직업	자영업	161(32.7)
	봉급생활자	332(67.3)
학력	중졸 이하	92(18.7)
	고졸 이하	259(52.5)
	전문대졸이상	142(28.8)
자산(원)	1억 미만	234(47.8)
	1억이상-2억미만	85(17.3)
	2억이상-3억미만	46(9.4)
	3억이상	125(25.4)
부채	부채 유	108(21.9)
	부채 무	385(78.1)

* 평균 59.02세

1억 미만이 47.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억이상이 25.4%로 차지하고 있었다. 부채는 부채 없음 78.1%, 부채 있음 21.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수준 변화 인식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은퇴준비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의 실태 및 차이

1)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
 은퇴준비 실태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은퇴준비 실태는 은퇴대비 여부, 재무상담 여부, 재무지식 정도, 자산의 충분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은퇴대비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7.5%, 재무상담은 상담을 받지 않은 응답자가 90.3%이었다. 재무지식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가 71.2%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모른다’가 22.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산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74.4%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은퇴에 대비한 준비 정도나 재무지식, 그리고 자산의 보유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어려움 변수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가 58%, 건강상 문제로 어렵다는 응답자가 32.1%, 외로움/소외감으로 어렵다는 39.2%,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어렵다는 응답자는 29.1%로 나타났다. 소일거리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차이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4>와 같다. 우선 연령에서는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성별에서는 재무지식정도에서만 차

〈표 3〉 은퇴준비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은퇴 준비 변수	은퇴 대비	은퇴대비 유	160(32.5)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 거리 없음	매우 힘들다	86(17.4)
		은퇴대비 무	333(67.5)			약간 힘들다	200(40.6)
	재무 상담	재무상담 유	48(9.7)			별로 어렵지 않다	154(31.2)
		재무상담 무	445(90.3)			전혀 어렵지 않다	53(10.8)
	재무 지식 정도	잘 알고 있다	24(4.9)		건강상 문제	매우 힘들다	31(6.3)
		조금 알고 있다	351(71.2)			약간 힘들다	127(25.8)
		대체로 모른다	111(22.5)		별로 어렵지 않다	263(53.3)	
		전혀 모른다	7(1.4)		전혀 어렵지 않다	72(14.6)	
	자산 충분성	충분	126(25.6)		외로움 소외감	매우 힘들다	30(6.1)
						부족	367(74.4)
		별로 어렵지 않다	225(45.6)				
		전혀 어렵지 않다	75(15.2)				
가족 갈등	매우 힘들다	16(3.3)					
	약간 힘들다	127(25.8)					
	별로 어렵지 않다	248(50.4)					
	전혀 어렵지 않다	101(20.5)					
계		493	계		493		

〈표 4〉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

은퇴준비변수		은퇴대비		재무상담		재무지식정도		자산 충분성	
		유	무	유	무	모름	알고 있음	부족	충분
연령 (세)	60대 미만	76(29.9)	178(70.1)	27(10.6)	227(89.4)	54(21.3)	200(78.7)	198(78.0)	56(22.0)
	60대 이상	84(35.1)	155(64.9)	21(8.8)	218(91.2)	64(26.8)	175(73.2)	169(70.7)	70(29.3)
χ^2		1.534		.476		2.060		3.394	
성별	남	123(31.6)	266(68.4)	33(8.5)	356(91.5)	85(21.9)	304(78.1)	297(76.3)	92(23.7)
	여	37(35.6)	67(64.4)	15(14.4)	89(85.6)	33(31.7)	71(68.3)	70(67.3)	34(32.7)
	χ^2	.586		3.294		4.400*		3.526	
직업	자영업	35(21.7)	126(78.3)	12(7.5)	149(92.5)	33(20.5)	128(79.5)	126(78.3)	35(21.7)
	봉급생활자	125(37.7)	207(62.3)	36(10.8)	296(89.2)	85(25.6)	247(74.4)	241(72.6)	91(27.4)
	χ^2	12.522***		1.418		1.552		1.832	
학력 (년)	중졸이하	20(21.7)	72(78.3)	8(8.7)	84(91.3)	33(35.9)	59(64.1)	79(85.9)	13(14.1)
	고졸이하	76(29.3)	183(70.7)	19(7.3)	240(92.7)	68(26.3)	191(73.7)	206(79.5)	53(20.5)
	전문대졸이상	64(45.1)	78(54.9)	21(14.8)	121(85.2)	17(12.0)	125(88.0)	82(57.7)	60(42.3)
	χ^2	16.272***		5.936		19.126***		30.652***	
자산 (원)	1억미만	47(20.1)	187(79.9)	12(5.1)	222(94.9)	74(31.6)	160(68.4)	205(87.6)	29(12.4)
	1억이상-2억미만	31(36.5)	54(63.5)	11(12.9)	74(87.1)	14(16.5)	71(83.5)	71(83.5)	14(16.5)
	2억이상-3억미만	16(34.8)	30(65.2)	3(6.5)	43(93.5)	12(26.1)	34(73.9)	37(80.4)	9(19.6)
	3억이상	66(52.8)	59(47.2)	22(17.6)	103(82.4)	15(12.0)	110(88.0)	51(40.8)	74(59.2)
	χ^2	40.537***		15.895**		20.312***		99.826***	
부채	유	21(19.4)	87(80.6)	7(6.5)	101(93.5)	23(21.3)	85(78.7)	97(89.8)	11(10.2)
	무	139(36.1)	246(63.9)	41(10.6)	344(89.4)	95(24.7)	290(75.3)	270(70.1)	115(29.9)
	χ^2	10.678**		1.667		.529		17.178***	

〈표 5〉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움 차이

생활어려움변수 사회인구 가계재정변수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연령 (세)	60대 미만	148(58.3)	106(41.7)	79(31.1)	175(68.9)	101(39.8)	153(60.2)	85(33.5)	169(66.5)
	60대 이상	138(57.7)	101(42.3)	79(33.1)	160(66.9)	92(38.5)	147(61.5)	58(24.4)	180(75.6)
	χ^2	.014		.215		.083		4.929*	
성별	남	252(64.8)	137(35.2)	120(30.8)	269(69.2)	164(42.2)	225(57.8)	125(32.2)	263(67.8)
	여	34(32.7)	70(67.3)	38(36.5)	66(63.5)	29(27.9)	75(72.1)	18(17.3)	86(82.7)
	χ^2	34.691***		1.220		7.019**		8.842**	
직업	자영업	87(54.0)	74(46.0)	54(33.5)	107(66.5)	64(39.8)	97(60.2)	50(31.1)	111(68.9)
	봉급생활자	199(89.9)	133(40.1)	104(31.3)	228(68.7)	129(38.9)	203(61.1)	93(28.1)	238(71.9)
	χ^2	1.551		.244		.037		.460	
학력 (년)	중졸 이하	63(68.5)	29(31.5)	45(48.9)	47(51.1)	50(54.3)	42(45.7)	30(32.6)	62(67.4)
	고졸 이하	157(60.6)	102(39.4)	78(30.1)	181(69.9)	97(37.5)	162(62.5)	83(32.2)	175(67.8)
	전문대졸 이상	66(46.5)	76(53.5)	35(24.6)	107(75.4)	46(32.4)	96(67.6)	30(21.1)	112(78.9)
	χ^2	12.614**		16.031***		11.954**		6.107*	
자산 (원)	1억미만	156(66.7)	78(33.3)	116(49.6)	118(50.4)	97(41.5)	137(58.5)	107(39.6)	163(60.4)
	1억이상-2억미만	54(63.5)	31(36.5)	37(43.5)	48(56.5)	23(27.1)	62(72.9)	19(29.2)	46(70.8)
	2억이상-3억미만	21(45.7)	25(54.3)	12(26.1)	34(73.9)	9(20.0)	36(80.0)	5(13.9)	31(86.1)
	3억이상	53(42.4)	72(57.6)	28(22.4)	97(77.6)	14(11.2)	111(88.8)	12(10.2)	106(89.8)
	χ^2	23.642***		29.297***		38.581***		38.926***	
부채	유	74(68.5)	34(31.5)	34(31.5)	74(68.5)	50(46.3)	58(53.7)	43(39.8)	65(60.2)
	무	212(55.1)	173(44.9)	124(32.2)	261(67.8)	143(37.1)	242(62.9)	100(26.0)	284(74.0)
	χ^2	6.267*		.20		2.966		7.756**	

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은퇴대비유무에 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자영업자 78.3%, 봉급 생활자 62.3%가 은퇴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재무상담을 제외하고 은퇴대비유 무, 재무지식정도, 자산충분성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자산은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3억 미만에서는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상담을 받지 않고, 재무지식정 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 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부채 는 은퇴대비와 자산충분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 움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5>와 같 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라 생활어려 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가족갈등에서 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소일거 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학력과 자 산은 모든 생활어려움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낮고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변수의 차이에서 학력이 낮고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 은퇴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부채에서는 소일거리 없음과 가족갈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소일거리 없음과 가족갈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및 차이

1)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다소 나빠졌다’고 인식한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 차이 없다’가 30.6%, ‘매우 나빠졌다’가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긍정적·부정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매우·다소 나빠졌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별 차이 없다, 매우·다소 좋아졌다’는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65.7%이고,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34.2%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좋아졌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집단을 차이없음/긍정적 집단으로, 다소 또는 매우 나빠졌다고 느끼는 집단을 부정적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변수, 생활어려움 변수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표 7>과 같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 중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은 직업과 부채를 제외한 연령, 성별, 학력, 자산이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는 모든 연령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 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 응답자는 69.7%로 51.0%인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충격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김지경, 2005)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는 학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졸이하에서는 응답자 88%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고졸이하에서도 응답자 67.2%가 부

<표 6>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매우 좋아졌다	3(0.6)	다소 나빠졌다	249(50.5)
	다소 좋아졌다	15(3.0)	매우 나빠졌다	75(15.2)
	별 차이없다	151(30.6)		
	차이없음/긍정집단	169(34.2)	부정집단	324(65.7)

〈표 7〉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사회인구·가계재정변수		변 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없음/긍정적	부정적
연령(세)	50-59세		102(40.2)	152(59.8)
	60세 이상		67(28.0)	172(72.0)
	χ^2		8.034**	
성별	남		118(30.3)	271(69.7)
	여		51(49.0)	53(51.0)
	χ^2		12.743***	
직업	자영업		53(32.9)	108(67.1)
	봉급생활자		116(34.9)	216(65.1)
	χ^2		.196	
학력(년)	중졸 이하		11(12.0)	81(88.0)
	고졸 이하		85(32.8)	174(67.2)
	전문대졸 이상		73(51.4)	69(48.6)
	χ^2		39.088***	
자산	1억미만		42(17.9)	192(82.1)
	1억이상-2억미만		34(40.0)	51(60.0)
	2억이상-3억미만		22(47.8)	24(52.2)
	3억이상		71(56.8)	54(43.2)
	χ^2		60.637***	
부채	부채 유		29(26.9)	79(73.1)
	부채 무		140(36.4)	245(63.6)
	χ^2		3.387	

〈표 8〉 은퇴준비 변수,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chi^2 / T값$
			차이없음/긍정적	부정적	
은퇴 준비 변수	은퇴대비	은퇴대비 유	92(57.5%)	68(42.5%)	$\chi^2 = 56.691^{***}$
		은퇴대비 무	77(23.1%)	256(76.9%)	
	재무상담	재무상담 유	22(45.8%)	26(54.2%)	$\chi^2 = 3.151$
		재무상담 무	147(33.0%)	298(67.0%)	
	재무지식정도 (4점리커트×10문항)			25.26(4.2)	22.69(4.4)
자산의 충분성	충분		89(70.6%)	37(29.4%)	$\chi^2 = 99.298^{***}$
	부족		80(21.8%)	287(78.2%)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거리 없음(4점 리커트)		2.09(0.8)	2.94(0.7)	T = 11.110***
	건강상 문제(4점 리커트)		1.89(0.7)	2.42(0.7)	T = 7.722***
	외로움/소외감(4점 리커트)		1.92(0.7)	2.50(0.8)	T = 8.067***
	가족과의 갈등(4점 리커트)		1.73(0.7)	2.32(0.7)	T = 8.678***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산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특히 1억 미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8>과 같다. 은퇴준비 변수에서는 은퇴대비유무, 재무지식정도, 자산의 충분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재무상담유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은퇴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재무지식정도는 낮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어려움 변수에서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의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소외감으로도 어려워하며,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은퇴 이후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9>와 같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은퇴대비, 재무지식정도,

<표 9>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493)

독립변수		종속변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B	S.E	Exp(B)
사회인구· 가계재정 변수	연령		-.052*	.024	.950
	성별(남=1)		-.626	.337	.535
	학력		.053	.061	1.054
	직업(봉급생활자=1)		-.168	.285	.845
	자산		.000	.000	1.000
	부채(유=1)		.119	.317	1.127
은퇴 준비 변수	은퇴대비(유=1)		.800**	.273	2.226
	재무상담(유=1)		-.122	.421	.885
	재무지식정도		.070*	.033	1.073
	자산충분성(충분=1)		1.215***	.309	3.369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거리 없음		-.795***	.170	.452
	건강상 문제		-.658**	.206	.518
	외로움/소외감		.093	.220	1.098
	가족과의 갈등		-.282	.236	.755
-2 Log likelihood			414.330		
Model Chi-square			216.169***		

* p< 0.1 ** p< 0.05 *** p< 0.01

자산충분성,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로 밝혀졌다.

각 변수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인다고 한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한 허정무(1998)의 결과를 지지한다.

은퇴준비 변수에서는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지식정도가 낮을수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은퇴에 관심을 가지고 은퇴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에서는 소일거리 없음과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일거리가 없음에 대해 어려워할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역할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에 대해 어려워할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준다는 생애주기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역할상실과 더불어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은퇴전과의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상담을 받지 않았으며, 재무지식정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어려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일거리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외하고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연령을 제외한 성별, 직업, 학력, 자산, 부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자산은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움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직업을 제외한 연령, 성별, 학력, 자산, 부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학력과 자산은 모든 생활어려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매우·다소 나빠졌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별 차이 없다, 매우·다소 좋아졌다’는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자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은퇴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 재무지식정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비율이 높으며,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소외감으로도 어려워하며,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은퇴대비, 재무지식정도, 자산충분성, 소일거리, 건강상 문제로 나타났다.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지식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소일거리 없어서 어려워할수록, 건강상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및 생활어려움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현재보유자산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 경제적인 독립 및 안정의 문제는 은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평균연령은 거의 60세에 가까운 사람들로 대부분 은퇴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는 곧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령자 통계(2008)에서 노후준비를 한 고령자가 34.7%로 나타난 것처럼 아직까지 은퇴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은퇴대비 및 개인재무상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재무상담도 받는 적극적인 은퇴준비 태도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후보장 정책, 은퇴자 교육 등의 정책적인 지원 및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중 특히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일거리와 건강문제는 역할 수행과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문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을 상실로 인식하지 않고 생애주기상의 역할 전환으로 받아들여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도 연령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 및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은퇴 이후의 늘어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은퇴대비를 하고 재무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는 대상을 많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즉,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은퇴준비가 중요함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변수에서 연금, 퇴직금과 같은 객관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연금과 퇴직금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인 제언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영애(1987). 한국의 정년제와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고찰.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동, 이흥구, 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

- 의식과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 3) 김나연, 김성희, 정은하(2007). 남성노인의 은퇴 이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21, 253-288.
 - 4) 김성순(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 6) 김연정(1996).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7)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8) 김정석(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 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9)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와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상위직종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이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11)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12) 모선희, 강지현(2003).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13) 문숙재, 정은숙(1985).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7.
 - 14)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15)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3.
 - 16) 백은영(2008).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44, 345-372.
 - 17)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33-148.
 - 18)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20) 손상희(2000). 은퇴 이후 경제준비를 위한 재무교육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생활과학연구 6, 35-48.
 - 21) 신화용, 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22)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3, 81-93.
 - 23) 안종범, 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 24) 여운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25)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6) 윤종주 외(1990). 소비생활지표의 체계개발을 위한 연구.
 - 27)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이은영(1996). 은퇴남자 노인들의 가족관계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이희숙, 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31) 임희섭(1996). 삶의 질에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
- 32)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33) 진계환(1988). 은퇴자를 위한 노후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4) 최가영, 조임현, 이의훈(2001). 노년기 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35) 최성재(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 36) 최신태, 김종숙(1983). 노인과 사회. 서울 : 고시연구소.
- 37) 통계청(2008). 2008 고령자통계. www.kostat.go.kr.
- 38) 하성재(1993). 도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9) 한경혜(1980).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0) 한희자 · 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후 삶의 상태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41) 허정무(1998).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홍성희, 광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43)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Andrews, F. M.&Wh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Press.
- 45) Atchley, R. C.(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Cambridge. MA : Schenkman.
- 46) Campbell, Angus.(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 McGraw-Hill.
- 47) Foster, A. C.(1996).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hly Labor Review March, 17-22.
- 48) Gratton, B., (1996). The poverty of impoverishment theory: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1890-195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27-39.
- 49) Hafstrom, J. L.(1986). Consumption level as it relates to quality of life. In J. L. Hafstrom(Ed.). Compen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 50) Hurd, M. D.(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8.
- 51) Kilty, K. M. & Behiling, J. H.(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9(2), 219-227.
- 52) Kim, J. E. and P. Moen.(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57B(3), 212-222.
- 53) Taylor, C.(1972). Developmental Conceptions and the Retirement Process. in F. M. Carp(ed). Retiremen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Inc.

54) Thompson. G. B.(1973). Work versus leisure roles: An investigation of morale among employed and retired men. *Journal of Gerontology* 28, 339-344.

- 투 고 일 : 2009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24일

상관계수

연령	연령	성별	음반직업	교육년수	현재보유자산	부채여부	음반대비	음반수입	개인수입	개인재무 관리정보	자산총합	소일거리 업권	건강업권	외로업권	가족관 업권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 493	-0.201** .000	0.030 .501	-0.254** .000	0.045 .315	-0.170** .000	0.053 .242	-0.066** .145	-0.124** .006	0.088 .062	0.008 .893	0.008 .893	0.060 .186	0.046 .312	-0.033 .463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493	1 .000	-0.177** .000	-0.119** .008	-0.030 .512	-0.070 .123	0.034 .445	0.062** .070	-0.085 .068	0.085 .061	-0.236** .000	-0.236** .000	0.028 .539	-0.126** .005	-0.146** .001
음반직업	0.030 493	-0.177** .000	1 .000	0.130** .000	0.004 .985	0.096** .000	0.168** .000	0.041** .361	-0.031 .488	0.068 .134	0.068 .873	0.010 .830	0.007 .873	-0.051 .255	-0.023 .517
교육년수	-0.254** .000	-0.119** .008	0.130** .000	1 .000	0.277** .000	0.006 .894	0.206** .000	0.103** .022	0.249** .000	0.285** .000	0.285** .000	-0.184** .000	-0.270** .000	-0.184** .000	-0.184** .000
현재보유자산	0.045 493	0.030 .000	0.130** .000	0.277** .000	1 .000	0.006 .894	-0.123** .000	0.205** .000	0.207** .000	0.207** .000	0.425** .000	-0.204** .000	-0.154** .000	-0.184** .000	-0.184** .000
부채여부	-0.170** .000	-0.070 .123	0.096** .000	0.006 .894	0.490 .490	1 .000	-0.147** .000	-0.058 .197	0.020 .662	0.187** .000	-0.187** .000	0.127** .065	0.040 .371	0.102** .024	0.150** .001
음반수입	0.053 493	0.034 .000	0.501 .493	0.168** .000	0.271** .000	0.493 .493	-0.147** .000	0.206** .000	0.206** .000	0.488** .000	0.488** .000	-0.222** .000	-0.173** .000	-0.196** .000	-0.210** .000
음반수입	0.053 493	0.034 .000	0.501 .493	0.168** .000	0.271** .000	0.493 .493	-0.147** .000	0.206** .000	0.206** .000	0.488** .000	0.488** .000	-0.222** .000	-0.173** .000	-0.196** .000	-0.210** .000
개인재무관리정보	-0.124** .006	-0.085 .068	-0.031 .488	-0.091 .249	0.207** .000	0.020 .662	0.185** .000	0.089** .047	0.172** .000	0.172** .000	0.172** .000	-0.272** .000	-0.255** .000	-0.309** .000	-0.259** .000
자산총합	0.088 493	0.065 .134	0.068 .873	0.265** .000	0.425** .000	-0.187** .000	0.448** .000	0.059 .194	0.172** .000	0.172** .000	0.483 .483	0.483 .483	0.493 .493	0.493 .493	0.493 .493
소일거리업권	0.088 493	0.061 .000	0.134 .493	0.265** .000	0.425** .000	-0.187** .000	0.448** .000	0.059 .194	0.172** .000	0.172** .000	0.483 .483	0.483 .483	0.493 .493	0.493 .493	0.493 .493
건강업권	0.068 493	-0.236** .000	0.010 .880	-0.194** .000	-0.204** .000	0.127** .005	-0.222** .000	-0.100** .026	-0.272** .000	-0.337** .000	-0.337** .000	0.472** .000	0.313** .000	0.472** .000	0.445** .000
외로업권	0.068 493	0.028 .539	-0.007 .873	-0.270** .000	-0.154** .000	0.040 .371	-0.173** .000	-0.021 .640	-0.255** .000	-0.198** .000	-0.198** .000	0.472** .000	0.313** .000	0.472** .000	0.445** .000
가족관업권	0.046 .312	-0.126** .005	-0.051 .295	-0.184** .000	-0.184** .000	0.102** .024	-0.196** .000	-0.065 .223	-0.303** .000	-0.291** .000	-0.291** .000	0.472** .000	0.488** .000	0.472** .000	0.682** .000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033 463	-0.146** .001	-0.029 .517	-0.164** .000	-0.184** .000	0.489 .489	-0.184** .000	-0.033 .466	-0.258** .000	-0.342** .000	-0.342** .000	0.445** .000	0.456** .000	0.445** .000	0.492 .49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